

“광주서 ‘포켓몬고’ 같은 게임 나와야죠”

콘텐츠 ‘금남로 시대’ 개막...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류진석 팀장

전일빌딩 글로벌 게임센터 등지 11월 조선포스스포츠경기장 개장 오월 시네마 프로젝트 5·18세계화

오는 4월 광주 콘텐츠산업 ‘금남로 시대’ 개막을 연다.

지역 게임산업 생태계를 이끌어 갈 광주글로벌게임센터가 호남언론의 텃자리인 동구 금남로 ‘전일빌딩 245’에 등지를 틀면서다.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국내 113조 원대 콘텐츠산업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게임·영화 등 다양한 부문에서 중흥무진 할 계획을 세웠다. 최근에는 전문성 강화를 위해 기존 콘텐츠개발팀을 게임산업팀, 영상산업팀 등으로 세분화한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5·18광주민주화운동 40주년을 기념한 광주브랜드영화는 해외 5개국 스크린에 오르며, 오는 11월에는 ‘e스포츠 경기장’이 조선포스에 문을 연다.

류진석(52) 게임산업팀장은 17일 남구 송하동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서 만나 일년 사업계획을 들려줬다.

류 팀장은 “광주게임 전국화·세계화”를 내건 광주글로벌게임지원센터 개관을 앞두고 분주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 센터는 올해 5억4000만원을 들여 지역 기업의 실감형 게임 제작을 돕고 ▲시장정찰형게임 ▲도심어드벤처 테마파크 ▲인디게임 개발지원 ‘인디스타즈’ 등을 추진한다.

“송하동 본원과 금남로 등에 흩어져있

던 게임지원 인프라가 전일빌딩 6층에 모입니다. 가상현실(VR)·증강현실(AR) 등 실감형 게임을 만들 수 있는 시험장비가 총망라되죠. 게임 창업자들은 이곳 센터 공간을 지원받으며 콘텐츠 개발을 위한 최적의 환경을 제공받게 됩니다. 지역 대학생 등 7개팀이 비용 부담을 덜고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인디스타즈 57’도 이곳에서 탄생할 예정입니다.”

광주의 대표 명소인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양림동 펍킹마을, KTX광주송정역 등은 ‘가상테마파크’로 탈바꿈한다.

전세계 열풍을 일으킨 증강현실 게임 ‘포켓몬고’와 같이 광주 거점지역은 도심 어드벤처 테마파크로 거듭난다. 류 팀장은 “기업 1곳당 2억원을 지원해 5G서비스 연계 게임서비스를 만들어 광주 관광지를 보다 실감나게 여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내년부터는 전세계 ‘게임마니아’들이 광주로 몰릴 것으로 전망된다.

오는 11월 조선포스스포츠 경기장 e스포츠 상설경기장이 들어서기 때문이다. e스포츠 상설경기장은 주 경기장 1000석, 보조 경기장 150석, PC 존 등을 갖춘 예정이다. 이곳은 게임 대회와 함께 아마추어 동호회, 대학생 리그 경기나 훈련을 진행하는 데 활용될 방침이다.

지난해 광주는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에서 부산, 대전과 함께 선정돼 국비 30억원을 지원받았다. 운영은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맡는다.

류 팀장은 “수도권에 밀집한 e스포츠 인



프라를 분산하는 데 이번 경기장 개관이 의미를 갖는다”며 “주요 상권과 가까운 조선포스 e스포츠 경기장 부지로 적격이며, 유명 대회를 유치하면 전국 곳곳의 게임



광주글로벌게임센터가 들어서는 동구 금남로 ‘전일빌딩 245’.

애호가들이 광주를 찾아 지역 경제에 보탬이 될 것으로 내다본다”고 말했다.

5·18 40주년을 맞아 제작된 ‘광주브랜드 영화’는 전국 곳곳과 해외 한국문화원 5곳에서 상영된다.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지난해부터 20억원에 달하는 예산을 들여 광주브랜드 영화 17편의 제작을 도왔다. 이들 영화는 올해 ‘오월 시네마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국내외 영화팬을 만날 예정이다. 오는 5월 서울·부산에서는 5·18 전국화 세계화를 위한 특별 상영전이 개최되며 전국 독립·예술영화전용관에서는 관련 기획전이 추진된다.

류 팀장은 “광주브랜드영화 제작지원은 영화산업 인력을 키우고 제2의 ‘가상충’처럼 해외시장을 개척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며 “5·18 광주정신을 국내외로 알리고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는 영화·영상 산업 지역 기반이 세워질지 기대한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1672.44 (-42.42)	↓ 금리(국고채 3년) 1.03 (-0.07)
↑ 코스닥 514.73 (+10.22)	↑ 환율(USD) 1243.50 (+17.50)



기아차 4세대 SUV 쏘렌토 출시

강인함과 세련미 특징

기아차가 17일 스포츠유틸리티차(SUV) 쏘렌토 4세대를 정식 출시했다. 이날 기아차에 따르면 4세대 쏘렌토는 6년 만에 나오는 새 모델로 강인함과 세련미를 담은 디자인과 대형 SUV 수준의 공간, 주행성능, 첨단 안전·편의사양 등이 특징이다.

외장 디자인은 ‘정제된 강렬함’이 주제로 내부는 ‘기능적 감성’을 내세웠다는 게 기아차의 설명이다.

디젤 모델은 강화된 배출가스 규제를 맞춘 ‘스마트스트림 D2.2’ 엔진과 우수한 변속 응답성과 부드러운 변속감을 갖춘 ‘스마트스트림 습식 8DC7’가 현대차그룹에서 처음 적용됐다. 복합연비는 14.3 km/l (5인승, 18인치 휠, 2WD 기준)다.

하이브리드 모델은 스마트스트림 터보 하이브리드 엔진과 6단 자동변속기가 들어간다.

기아차는 3분기에 스마트스트림 G2.5 T 엔진과 스마트스트림 습식 8DC7가 탑

재된 가솔린 터보 모델을 추가할 계획이 다.

이밖에 현대차그룹에서 처음으로 ‘다중 충돌방지 자동 제동 시스템(MCB)’이 들어갔다. 1차 충돌 후 운전자가 일시적으로 차량을 통제하지 못하면 자동으로 차량을 제동해 2차 사고를 방지한다.

코로나19로 인해 출시행사는 온라인 토크쇼로 대체된다. 시승 프로그램도 퇴근 시간 후 운영되며 이색 액티비티를 함께 체험하도록 구성됐다.

기아차는 증강현실(AR) 기술을 활용한 ‘기아 Play AR’ 앱으로 전시장을 오지 않고 쏘렌토를 살펴볼 수 있도록 했다.

쏘렌토 가격은 개별소비세 1.5% 기준 디젤 모델이 트렌디 2948만원, 프레스티지 3227만원, 노블레스 3527만원, 시그니처 3817만원이다.

하이브리드 모델 가격은 사전계약 가격은 프레스티지 3550만원, 노블레스 3830만원, 시그니처 4100만원이다. 신규계약을 받을지는 미정이며 가격도 검토 중이다. /백희준 기자 pbxer@kwangju.co.kr

코로나19에...유통가 ‘드라이브 스루’ 뜬다

롯데백화점 광주점 앱 주문 후 차량 픽업 판매 첫 도입 스타벅스·맥도날드·초밥집 등 마케팅 문화 자리잡아

코로나19발 경기 침체 속에서 차에서 내리지 않고 구매하는 ‘드라이브 스루’(Drive-Thru)가 유통가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17일 롯데백화점 광주점은 이날부터 전용 앱으로 주문하면 백화점 주차장에서 상품을 받을 수 있는 이른바 ‘드라이브-픽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에 동참하려는 취지로 마련됐다. 광주점 ‘드라이브-픽’은 호남지역 백화점 가운데 처음 시행된다.

롯데백화점 모바일 앱에서 구매하면 광주점 1층 발렛파킹(주차 대행 서비스) 구

간에서 차량에서 내리지 않아도 상품을 고객이 미리 지정된 시간에 받을 수 있다. 롯데백화점 광주점은 집회와 생활용품, 가공품 위주로 ‘드라이브-픽’ 전용 상품을 구성할 계획이다.

앞서 13일부터는 롯데백화점 앱을 통해 베이커리, 제철 과일, 간편식 등을 주문 당일 배송하는 ‘식품 딜리버리 서비스’도 운영되고 있다.

한유정 롯데백화점 광주점 온라인 담당은 “코로나19 영향으로 백화점 방문을 꺼리는 고객들이 이번 서비스를 통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한 쇼핑을 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드라이브 스루’는 프랜차이즈 커피숍과 패스트푸드점, 초밥집 등 외식업계에 서 주류 마케팅 문화로 자리잡았다.

커피전문점 스타벅스 매장의 1~2월 ‘드라이브 스루’ 주문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2% 증가했다.

‘하이패스’처럼 미리 등록된 결제수단으로 차 안에서 구매할 수 있는 ‘마이 DT 패스’ 주문 비중은 전체 드라이브 스루 주문의 40%에 달한다. (주)스타벅스커피 코리아는 지난해 8월부터 ‘드라이브 스루’ 주문 가능 반경을 2km에서 6km로 확대하고 삼성·SK텔레콤과 연계한 음성주문 서비스도 도입했다.

한국맥도날드의 2월 17일~3월 9일 ‘맥드라이브’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 증가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광주국세청 코로나 극복 나눔 음식점·마트 이용 캠페인

광주지방국세청(청장 박석현)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다양한 나눔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우선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직원들이 매주 2회 청사 인근 식당을 이용하고, 확진자 방문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음식점·마트 25곳에 대한 이용캠페인을 펼치는 등 지역상권 활성화에 나서고 있다. 또 지역 보건소 25곳을 방문해 방역물품을 후원하고, 졸업식 취소 등 직격탄을 맞은 화훼농가 돕기에도 나서고 있다. 이날 사회 복지공동모금회 대구와 경북지회에 각각 300만원씩의 후원금을 기탁하기도 했다.

박석현 청장은 “치열한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의료인과 지역민 등 모두 힘내 위기를 극복했으면 한다”며 “어려움을 겪는 지역민과 고통을 분담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기용 기자 pbxer@

‘YES FTA 컨설팅사업’ 참여 기업 21곳 최종 선정

광주본부세관

광주본부세관(세관장 김광호)은 ‘2020 YES FTA 컨설팅사업’ 참여대상 기업 21곳을 최종 선정했다고 17일 밝혔다.

‘YES FTA 컨설팅사업’은 관세청에서 FTA 활용 실적이 있는 최초 수출예정기업이나 유망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FTA 활용부터 수출입통관, 원산지 검증까지 컨설팅을 제공하는 종합기업지원 사업이다.

지난달 접수에서 지역 40개 기업이 선

정해 21개 기업이 최종 선정됐다. 유형별로는 최초로 수출하거나 거래선을 확대하는 기업 15곳, FTA 원산지 검증에 대응하는 기업 6곳이다.

선정된 업체에는 관세청에서 위촉한 전문 컨설턴트(관세사)가 직접 방문해 컨설팅을 제공한다.

김광호 세관장은 “이번 컨설팅 사업에 선정되지 않은 기업에 대해서도 공익관세사의 상담제공, 유관기관 FTA 컨설팅 사업과의 연계 등을 통해 소외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기용 기자 pbxer@kwangju.co.kr

아직도 묘지를 선호하십니까?

자연장의 장점

- 매장이나 봉안에 비해 비용이 매우 저렴합니다.
- 관리가 편하며 반영구적입니다.
- 생활공간과 가깝습니다.
- 국토를 효율적 활용 자연을 보존할 수 있습니다.

전국 3대 명당으로 꼽히는 보성을 아십니까?
그 곳에 수목장이 새롭게 오픈했습니다.
이장부터 안치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잊혀지지 마세요.
잊지마세요.
자연에서 기억하세요.
사람은 원래 자연입니다.

보성수목장

보성군 노동면 소재

수목장 * 자연장

자연과 인간이 함께하는 새로운 장묘문화입니다

화장한 후 잔디나 화초, 나무 밑에 유골을 묻어 고인을 자연으로 되돌아가게 하는 아름다운 장묘문화입니다.

061)322-6183